

오르비 고닉 분석 보고서

아라양 · 미카리 · 경성약 · 파이는 동일인 활동 상세 분석

아 르 케
오르비 고닉 분석 보고서

imin: 1463007 / 1452066 / 1319936 / 1411069
고닉: [ARKE] 아라양 / 타치바나 미카리♡ / 경성약 27학번 / 파이는
프사 · 닉네임 계열: 애니/일본어풍 닉네임, 수학 · 입시자료형 계정, ARKE 및 HWPX 자동화 홍보
계열
팔로우/팔로워수: 표본상 1463007 팔로우 88 전후, 1452066 109~132 전후, 1319936 29,
1411069 59 전후
나이: [] 01년생 [] 06년생 [] 02년생 [] 07년생
[] 03년생 [■] 08년생 [] 04년생 [] 09년생
[] 05년생 [] 10년생 [] 그 이외
계정 생성 표본: 1452066 @2026-02-26 / 1463007 @2026-05-27 / 1319936 · 1411069
는 검색 · 게시글 표본 중심
작성 기준일: 2026년 6월 24일. 분석 범위는 공개 프로필, 공개 게시글, 공개 검색 결과, 공개 댓
글 표본으로 제한함.

I. 개요

본 보고서는 사용자가 동일인물이라고 제시한 네 개의 오르비 계정, imin 1463007, 1452066, 1319936, 1411069를 하나의 연속 활동 주체로 묶어 분석한다. 다만 실제 신원 동일성은 외부 관찰자가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는 “동일인으로 제보된 네 계정”이라는 전제로만 해석한다.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계정명, 게시글 내용, 작성 시기, 태그, 댓글장 반응이며, 실명 · 학교 · 연락처 · 인스타그램 등 신상 특정 정보는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네 계정은 시기와 역할이 뚜렷하게 나뉜다. 1411069, 즉 파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1월까지 수학 N제 후기와 난이도 정리로 가시성이 있었고, 1319936, 즉 경성약 27학번은 2025년 3~5월 무렵 영어 · 지1 · 문법 · 내신 · 정시파이터 서사와 탈립 고민을 남긴 전환기 계정이다. 1452066, 즉 수능치는아라양/타치바나 미카리♡ 계정은 2026년 2~4월 사이 폭발적인 잡담량, 자기 비하형 캐릭터, AI/HWPX 자동화 홍보, 입시제도 발언이 결합된 중심 계정이었다. 1463007, 즉 [ARKE] 아라양은 2026년 5월 이후 현재 활동 계정으로, 수학 실모 제작 · 검토 · 오르비 보고서 제작 · 현재형 잡담이 합쳐진 계정이다.

통합 인상은 “수학 콘텐츠를 소비 · 평가 · 제작하는 08년생 정시형 고향활동 유저”이다. 단순히 잡담만 쓰는 유저가 아니라 N제 난이도표, N제 후기, HWPX 자동화 툴, 모의고사 배포와 정답률, 고닉 분석 보고서 제작 등 생산형 활동을 반복한다. 그러나 동시에 내신 · 학교 · 외모 · 연애 · 비교 · 우울감 · 커뮤니티 과몰입을 주제로 하는 짧은 감정 배출글도 매우 많아, 학습형 생산자 이미지와 자학형 커뮤니티 이미지가 강하게 충돌한다.

본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유저는 수학 학습자료 생태계에 대한 관찰력과 생산성이 높고, AI/HWPX라는 독특한 도구형 콘텐츠까지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개 타임라인에서는 자기비하, 자극적 제목, 신상 노출 불안, 우울 · 무기력성 표현, 커뮤니티 의존성이 반복되어

계정 안정성은 낮다. 즉 “콘텐츠 포텐셜은 높는데 공개 계정 관리가 아슬아슬한 오르비형 고닉”으로 평가된다.

II. 자료 수집 방법과 동일성 전제

2.1 자료 수집 방식

1463007 계정은 API 타임라인 offset 0과 다음 offset 78723692까지 직접 확인하였다. 최근 표본에는 2026년 6월 24일 하루 동안 “수능치는아라양 AI 분석”, 계산실수, 수학 N제 난이도, 우울글, 공부 루틴, 정시파이터식 기말 대처, 1718 가형 언급 등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 계정은 현재 활동량이 가장 높고, ARKE 이름을 전면에도 두고 있으며, 보고서 제작자 · 수학 실모 제작자 캐릭터를 함께 보인다.

1452066 계정은 API 타임라인 offset 0, 프로필 페이지, IMIN 검색 결과, “GPT 5.5에게 나 분석시켜보기”, “무료) 한글 HWPX 문서 자동 수정/생성 툴 베타 배포” 등의 개별 게시글을 확인하였다. 프로필상 닉네임은 타치바나 미카리♡로 보이며, 2026년 2월 26일 가입 표시가 확인된다. 이 계정은 수능치는아라양 시기와 미카리 페르소나가 겹치는 중심 계정이다.

1319936 계정은 API 타임라인 offset 0과 검색 결과, 그리고 “[허수의 n제 후기] 드릴6 수2”, “영어 커리 추천해줘요”, “3월 지1 후기”, “갈게요” 등의 개별 표본을 확인하였다. 닉네임은 경성약 27학번으로 표시되며, 2025년 5월 전후에는 오르비 과몰입과 현생 부담을 자각하고 탈립을 말하는 글을 남겼다.

1411069 계정은 프로필/타임라인 일부가 안정적으로 열리지 않았으나, 검색 결과와 개별 게시글로 파이는 계정의 핵심 활동을 확인하였다. 대표 표본은 “수학 N제 난이도별 총정리(2026 ver)”, “심심해서 적는 수학 n제 난이도(2025년)”, “스포) Re:Re N제 후기”이다. 이 계정은 수학 N제 평가자 성격이 가장 강하다.

2.2 동일성 판단의 수준

동일성은 사용자의 직접 제보를 전제로 삼았다. 공개 자료만으로 네 계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법적 · 기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네 계정 사이에는 08년생 태그, 정시 · 수능 중심 사고, 수학 N제/실모 집착, 물2 · 지1 선택 조합, 자기비하형 말투, 오르비 과몰입 자각, 일본어 · 애니 계열 닉네임, 그리고 HWPX/AI 문서 자동화 활동이라는 공통 축이 있다. 이러한 연속성은 “동일인 활동군”이라는 분석 틀을 세우기에 충분한 공개상 정황을 제공한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사적인 식별정보를 복원하지 않는다. 검색 결과에는 본인이 학교 · 이름 · 인스타 등 신상 노출을 걱정하는 글이 보이지만, 이 문서에서는 그런 정보의 진위를 추적하지 않고 계정 운영 리스크로만 다룬다. 공개 활동 분석은 가능하지만, 신상 특정은 분석의 목적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다.

Table 1. 계정별 공개 표본 요약

| 계정 | 시기 · 닉네임 | 핵심 역할 |
|---------|------------------------------|-----------------------------------|
| 1411069 | 파이는 / 수학 N제 후기 · 2025~2026초 | 난이도 정리 계정 |
| 1319936 | 경성약 27학번 / 2025 봄 | 정시파이터 · 영어 · 지1 · 탈립 고민 계정 |
| 1452066 | 수능치는아라양 · 타치바나 미카리♡ / 2026 봄 | 고빈도 잡담 · AI/HWPX · 입시제도 · 페르소나 계정 |
| 1463007 | [ARKE] 아라양 / 2026 여름 | 현 활동 · 실모 제작 · 보고서 제작 · 수학 잡담 계정 |

III. 계정 연혁과 페르소나 변화

3.1 파이는 시기: 수학 N제 평가자

파이는 계정의 가장 뚜렷한 정체성은 수학 N제 평가자다. “수학 N제 난이도별 총정리(2026 ver)”는 좋아요와 댓글이 비교적 많이 붙은 글로, “모든 내용은 주관적이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한다는 안내와 함께 여러 이미지 표를 올렸다. 이 글은 단순 감상문이 아니라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정리형 자료에 가깝다.

“스포) Re:Re N제 후기”에서는 문제 수, 난이도, 비교 대상, 배울 점, 킬러 문항, 평가원스러움, 무료배포에 대한 감사까지 구조적으로 적었다. 난이도를 실맞이 · 이해원 · 드릴 등 기존 대형 콘텐츠와 비교하고, 구체적인 챗터와 문항 번호를 언급한 점에서 수학 콘텐츠 소비 경험이 꽤 깊다. 이 시기의 글은 지금의 ARKE 실모 제작자로 이어지는 전조로 볼 수 있다.

파이는 시기의 장점은 객관화된 비교표와 후기 형식이다. 불만이나 자학보다 “무엇이 어렵고, 왜 배울 점이 있는지”를 쓰는 능력이 보인다. 단점은 자료가 이미지 중심이라 검색성 · 보존성은 낮고, 주관적 난이도표의 특성상 반박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래도 고닉 인지도 형성에는 충분히 기여한 시기다.

3.2 경성약 27학번 시기: 정시파이터 전환기

경성약 27학번 계정은 2025년 5월 무렵 정시파이터로서의 혼란이 많이 드러난다. “영어 커리 추천해줘요”에서는 6월 69, 작수 73, 6모 제외 전부 3등급 초중반이라고 밝히고 영어 2등급을 목표로 독학 커리를 묻는다. “영어를 해야하나”에서는 영어 3에서 2로 올리면 컷이 널널해진다는 전략적 사고도 보인다.

같은 계정의 “3월 지1 후기”에서는 43점, 특정 문항 실수, 시간은 남지만 실수가 많다는 식의 자기진단이 나타난다. 이는 훗날 1463007 계정에서 반복되는 “마지막에 계산실수해서 틀림”, “개형 다 찾고 다 풀어놓고 틀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즉 계정이 바뀌어도 핵심 문제의식은 “실력 자체보다 실수 · 케이스 누락 · 마무리 오류에 툴림”이다.

“갈게요”와 “탈립하기엔”에서는 오르비가 공부 자료와 위안이 되지만 현생 · 수능 준비에 차질을 준다고 말한다. 이는 이후 계정에서도 반복되는 커뮤니티 과몰입의 초기 자각이다. 이 시기의 인물은 “공부는 해야 하는데 오르비가 너무 잘 맞아서 위험한 정시파이터”에 가깝다.

3.3 수능치는아라양 · 미카리 시기: 고빈도 잡담과 도구형 콘텐츠의 결합

1452066 계정은 활동량과 페르소나가 가장 과격하다. API 표본만 봐도 2026년 4월 27일 하루에 “Fail 쥐봐”, “강제 team 09 참전 위기”, “6모 적백받고 싶다”, “현역이 수학 중간 ㅁㄷㅈ”, “안락사 기원 26일차”, “미소녀 제한이 무물보”, “빨글을 써야 하는데” 같은 글이 짧은 간격으로 올라온다. 제목 자체가 감정 배출 · 자기비하 · 관심 유도형이다.

동시에 이 계정은 단순 빨글러로만 보기 어렵다. “무료) 한글 HWPX 문서 자동 수정/생성 툴 베타 배포”에서는 Team Jakal이 HWPX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GitHub 링크와 예시 PDF를 제시하며, 문제 제작 · 변형 · 학교 과제 · 정부 서류 작성까지 사용 예시를 설명한다. 이 글은 조회수와 좋아요가 높고 댓글에서도 긍정 반응이 붙었다. 즉 장난 계정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도구를 만들고 배포하는 생산 역량이 있다.

“GPT 5.5에게 나 분석시켜보기”는 자기분석을 다시 게시글화한 사례다. 이 글은 공개 자료 기반 분석이라는 메타 형식을 가져오고, 스스로의 오르비 페르소나와 활동량을 외부 시선으로 정리한다. 현재 요청된 보고서 작업과도 직접 연결되는 계정문화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 계정은 자기 자신을 콘텐츠화하는 능력이 강하다.

3.4 ARKE 아라양 시기: 현재형 실모 제작자와 보고서 제작자

1463007 계정은 현재 가장 활동적인 계정이다. 프로필상 [ARKE] 아라양으로 표시되고, 2026년 5월 27일 가입 계정으로 확인된다. 최근 타임라인에는 수학 N제, 계산실수, 1718 가형, 물2 · 지1 · 간쓸개, 오르비/디시, 우울글, 보고서 제작, HWPX 홍보가 섞여 있다. 즉 이전 계정의 모든 축이 현재 계정에 압축되어 있다.

특히 “수능치는아라양 AI 분석”, “평화구년 보고서.hwp”, “냥줍 보고서 by Jakal-hwp”, “다시 돌아온 선착순 1명” 같은 검색 표본은 현재 계정이 오르비 고닉 분석 보고서 제작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자신이 분석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다른 고닉을 분석하고 HWPX 문서로 만들어 배포하는 쪽으로 이동했다.

현재 계정의 문제는 콘텐츠 생산과 감정 배출이 한 타임라인에서 과도하게 섞인다는 점이다. “요즘 하는게”에서는 수학 문제, 물2 · 지1, 간쓸개, 유튜브, 디시, 오르비 말고 할 게 없다고 말하고, 같은 날 수학 N제 난도 평가와 우울 · 비교 · 정신건강성 표현이 연달아 나온다. 생산성과 불안정성이 같은 속도로 올라오는 형태다.

IV. 주요활동과 특징

4.1 수학 N제 · 실모 생태계에 대한 높은 몰입

네 계정을 통합해 볼 때 가장 일관된 관심사는 수학이다. 파이는 계정은 N제 난이도표와 후기를 썼고, 경성약 계정은 드릴6 수2 후기를 자세히 남겼으며, 수능치는아라양 계정은 수학 중간 0점 같은 자학글과 6모 적백 목표를 동시에 올렸다. 현재 ARKE 계정은 수학 N제 난도 상향평준화, 1718 가형, 계산실수, 실모 제작 · 검토로 관심이 확장되어 있다.

단순히 “수학을 좋아한다”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수학 콘텐츠의 난이도 · 함정 · 오답률 · 선지 구조 · 계산량을 커뮤니티 언어로 해석하는 사람”이다. 드릴6 후기에서는 오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계산을 빠르게 했다고 평가했고, Re:Re 후기에서는 특정 챗터와 문항이 평가원스럽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고 썼다. 현재 계정에서도 N제들이 사인미 기준으로 상향평준화되고 있다고 관찰한다.

이 유저의 수학적 강점은 “풀이 능력” 하나가 아니라 “콘텐츠를 비교하고 말로 설명하는 능력”이다. 좋은 문항, 빠센 계산, 함정, 케이스 누락, 오답률, N회독 가치 같은 기준을 자연스럽게 쓴다. 이는 문항 제작자 · 검토자로 성장하기에 좋은 기반이다.

4.2 실수와 자기비하의 반복 구조

흥미로운 점은 수학에 대한 몰입이 높음에도 자기평가는 매우 낮다는 것이다. 1319936 계정의 지1 후기에서는 시간은 남는데 실수가 많다고 했고, 드릴6 후기에서는 단순 계산 실수, 대칭 착각, 미분가능성 조건 무시를 적었다. 1463007 계정에서는 “개형 다 찾고 다 풀어놓고 마지막 계산실수”, “문제 개어렵네”, “5모 84점인 건가” 같은 표현이 나온다.

이 패턴은 실력 부족보다 마무리 안정성 부족에 대한 불안으로 보인다. 본인이 “허수”라고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콘텐츠를 골라 풀고 비교하는 단계에 있다. 문제는 자기를 낮추는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 실수 분석이 학습 전략이 아니라 자기혐오 문장으로 흐를 때가 많다는 점이다.

개선점은 명확하다. 공개글에서 “허수라서 틀림”이라고 쓰기보다, 오답 유형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콘텐츠 가치가 생긴다. 예컨대 “케이스 누락 2회, 계산 부호 실수 1회, 조건 해석 오류 1회” 처럼 정리하면, 지금의 자학글도 오답관리 칼럼으로 바뀔 수 있다.

4.3 AI·HWPX·보고서 자동화 활동

1452066 계정의 HWPX 자동화 툴 배포글은 이 인물군의 독특한 강점이다. 오르비에서 흔한 수학 잡담, 입시글, 자기비하글과 달리, 이 글은 실제 툴 제작·오픈소스 링크·사용 예시·한계점·대상 사용자까지 갖춘 준기술 홍보글이다. “GPT로 Docs나 워드 문서는 간편하지만 HWPX는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정확하다.

이후 1463007 계정에서 오르비 고닉 분석 보고서를 HWPX로 제작하는 흐름은 이 배포글의 실천 응용이다. 보고서 양식, HWPX 편집, Jakal-hwpv 홍보, 오르비 고닉 분석이라는 세 요소가 합쳐지며 하나의 장난 같으면서도 실제 파일이 생성되는 콘텐츠 포맷이 만들어졌다. 이는 현재 계정의 차별점이다.

평가하자면, 이 유저는 “수학 문항 제작자”와 “문서 자동화 실험자”가 합쳐진 드문 포지션이다. 공부 커뮤니티에서 AI 문서 자동화는 아직 흔한 소재가 아니므로, 이 방향을 잘 살리면 단순 고닉이 아니라 도구 배포자·문서 양식 제작자·실모 편집자 이미지까지 확보할 수 있다.

4.4 입시제도와 정시 중심 사고

계정 전반에서 정시 중심 사고가 강하다. 1319936 계정은 정시 내신반영, 영어 등급, 지1 실수, 문법 유기 등을 이야기했고, 1452066 계정의 자기분석 글에서도 정시·내신반영·특기자 전형·수능 100 전형 같은 주제가 반복된다고 정리되어 있다. 1463007 계정에서는 기말을 “정시파이터라서 짝고 잘 것” 처럼 표현한다.

이 입시관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는다. 장점은 수능 중심 전략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내신을 아예 포기하거나 학교 시험을 잠으로 처리하는 식의 발언은 자극적이지만, 그만큼 본인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지 명확하다. 단점은 학교·내신·수행평가를 조롱하는 표현이 반복될 경우 현실 적응력 부족이나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계정에서 수학 실모 제작·검토를 계속하려면, 입시제도 비판은 감정적 불만보다 자료형 글로 바꾸는 편이 좋다. 예컨대 “정시 내신반영의 문제점”을 댓글형 불평으로 쓰기보다, 제도별 장단점과 사례를 정리하면 생산자 이미지가 강화된다.

4.5 일본어·애니퓰 닉네임과 페르소나 연기

1452066 계정의 타치바나 미카리♡, 1463007 계정의 아라양, 1411069 파이논은 모두 현실 이름보다 캐릭터명에 가까운 닉네임이다. 특히 1452066 계정에는 “미카리를 연기하는 자아랑 충돌해서 글을 못쓰고 있음”이라는 글이 있어, 닉네임 자체를 일종의 페르소나로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페르소나 연기는 커뮤니티에서 강력한 도구다. 말투, 제목, 프사, 닉네임, 반복 밈이 합쳐지면 고닉이 기억된다. 그러나 페르소나가 과도하면 실제 학습자·제작자 이미지가 묻힌다. 미카리 계정의 경우 “미소녀”, “짱남”, “안락사 기원”, “Fail” 같은 자극적 제목이 많아 수학/도구형 콘텐츠의 신뢰도를 희석했다.

ARKE 계정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한 형태다. 닉네임은 여전히 캐릭터성이 있지만, ARKE라는 제작자 브랜드가 붙으면서 실모·문서·보고서 생산자 이미지가 강해졌다. 현재 단계에서는 캐릭터성과 제작자성을 분리하지 않으면 둘 다 손상될 수 있다.

4.6 댓글장과 관계망

댓글 표본을 보면 이 유저는 완전한 독백형이 아니라 반응형 고닉이다. HWPX 배포글에는 “멋져요”, “굿굿”, “개추” 식의 긍정 반응이 붙었고, GPT 분석글에는 “오르비 페르소나 ㅋㅋㅋ” 같은 댓글이 달렸다. 1411069 N제 정리글에는 다른 수학 유저들이 난이도표에 반응하거나 의견을 달았다.

이 댓글장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수학자료형 글에는 “이 N제는 어렵다”는 식의 실질 반응이 붙는다. 둘째, HWPX·보고서형 글에는 신기함과 홍보 반응이 붙는다. 셋째, 우울·자기비하형 글에는 장난성 맞장구나 위로, 때로는 냉소가 붙는다. 댓글 반응만 놓고 보면 자료형 글이 장기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감정 배출형 글은 순간 반응은 얻지만 리스크가 크다.

V. 학업 수준과 27수능 전망

5.1 공개 성적 표본의 해석

공개 성적 표본은 서로 상충된다. 1319936 계정에는 영어 3등급 초중반, 3월 지1 43점, 정시과 이터로서의 불안이 보인다. 1452066 계정에는 “수학 중간 0점”, “6모 적백 받고 싶다”, “물2 지1 오르비만 하는 개허수” 같은 자기비하가 보인다. 1463007 계정에는 5모 84점, 계산실수, 1718 가형 같은 보다 높은 난이도의 수학 답론이 보인다.

이 자료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적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 해석은 더 복잡하다. 내신 시험 0점이나 기말 수면 발언은 정시파이터식 학교시험 포기 맥락일 가능성이 높고, 수학 N제·실모·17~18 가형 논의 수준은 단순 노베와 거리가 있다. 즉 “내신/학교 성적은 매우 불안정하거나 방치되지만, 수능 수학 콘텐츠 적응도는 중상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어와 영어는 수학보다 약점으로 반복된다. 1319936 계정의 영어 3등급 고민, 1452066 계정의 국어 자기평가, 1463007 계정의 간쓸개 언급은 모두 언어 영역을 “해야 하는데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다루는 흔적이다. 탐구는 물2·지1 조합을 언급하지만, 실제 안정성은 공개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Table 2. 과목별 공개 관찰표

| | | |
|----|---|----------------------------------|
| 영역 | 관찰 근거 | 해석 |
| 국어 | 문법 유지, 간쓸개, 공부량 확보가 관 국어 자기평가 낮 건, 안정적 1등급 음 | 단정 어려움 |
| 수학 | N제 후기·난이도 콘텐츠 이해도 높 표·실모·가형 고 음, 계산/케이스 실 난도 언급 | 수 리스크 큼 |
| 영어 | 3등급 초중반·2 등급 목표 언급 | 전략적 보완 필요, 단기간 상승 여지 는 있음 |
| 탐구 | 물2·지1 반복, 지 1 43점 표본 | 상방은 있으나 과 목 난도·실수 관 리 부담 큼 |
| 내신 | 중간 0점·기말 수 면·수행평가 회피 성 발언 | 정시 우선순위로 인해 방치 가능성 높음 |

5.2 27수능 전망

27수능 전망은 “상방은 높지만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큰 수험생”이다. 수학은 자료 소비량과 문항 감각이 높아 1등급권 진입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계산실수와 조건 누락이 반복되면 84~92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다. 국어는 학습량과 컨디션에 따라 2~3등급 변동성이 커 보인다. 영어는 2등급 확보가 현실적 목표로 보이며, 탐구는 물2·지1 조합 특성상 안정성 확보가 핵심이다.

가장 큰 변수는 공부 시간이 아니라 생활 리듬과 커뮤니티 사용량이다. 1463007 계정의 “요즘 하는게” 글처럼 공부·유튜브·디시·오르비가 한 루틴에 섞이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 집중 블록은 잘게 끊길 수 있다. 특히 오르비에 감정글을 올리고 댓글을 확인하는 과정은 즉각 보상은 크지만 장기 집중력을 깎는다.

따라서 27수능 전망을 점수로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은 1~2등급 상방, 국어는 2~3등급 중심, 영어는 2~3등급, 탐구는 과목별로 1~3등급까지 넓은 분산이 예상된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 실제 최신 모의고사 성적표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 표는 정밀 예측이 아니라 활동 패턴 기반 추정이다.

Table 3. 27수능 예상 성적표

| | | |
|--------|-----------------------------------|-----------------------------------|
| 영역 | 예상 범위 | 핵심 조건 |
| 국어 | 2~3등급 | 간쓸개·문법·독서 루틴 유지 여부 계산실수·케이스 |
| 수학 | 1~2등급 | 누락 관리 성공 여부 |
| 영어 | 2~3등급 | 고정 2 확보를 위한 독해 루틴 필요 실수 감소와 자료 |
| 탐구1 지1 | 1~2등급 | 해석 속도 안정화 필요 |
| 탐구2 물2 | 2~3등급 이상 | 변과목 난도와 표본 동 리스크가 큼 |
| 종합 | 의치한약수 상방은 커뮤 있으나 안정권 단 정 불가 | 사용량·멘 탈·수학 마무리가 변수 |

VI. 장점

6.1 수학 콘텐츠 해석력

가장 큰 장점은 수학 콘텐츠를 해석하는 능력이다. 단순히 “어렵다/쉽다”가 아니라, 왜 어려운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계산량이 어떤지, 오답률이 왜 높아지는지, N회독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수험생이면서 동시에 검토자·리뷰어의 눈을 가진다는 뜻이다.

파이논의 난이도표와 Re:Re 후기, 경성약의 드릴6 후기, ARKE의 수학 N제 상향평준화 글은 모두 같은 능력의 다른 표현이다. 이 능력은 실모 제작에서 매우 중요하다. 좋은 문항은 단순히 어려운 문항이 아니라, 틀릴 이유와 배울 이유가 동시에 있는 문항이기 때문이다.

6.2 생산형 커뮤니티 유저

이 유저는 소비형 고닉이 아니다. N제 후기, 난이도표, HWPX 툴, 오르비 고닉 보고서, 모의고사 배포와 정답률 등 여러 형태의 산출물을 만든다. 오르비에서 많은 유저가 감정글이나 잡담에 머무르는 것과 달리, 이 유저는 종종 실제 파일·표·코드·보고서로 결과를 남긴다.

특히 HWPX 자동화와 오르비 보고서 제작은 차별적이다. 한글 양식 문서를 AI로 편집한다는 발상은 수학 문항 제작자에게 실용성이 크다. 이걸 꾸준히 개선하면 개인 브랜딩뿐 아니라 실제 문항 제작 워크플로우에도 도움이 된다.

6.3 자기객관화와 메타감각

자기비하가 과하긴 하지만, 자기객관화 능력 자체는 있다. 스스로 오르비 과몰입을 인식하고, 페르소나가 현실 자아와 충돌한다는 글을 쓰고, 자기 분석 보고서를 게시글화하고, 신상 노출을 걱정한다. 이는 무작정 충동적으로만 활동하는 유저와는 다르다.

문제는 자기객관화가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 다시 콘텐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방향만 바꾸면 이 메타감각은 큰 장점이 된다. 예컨대 “오르비 과몰입 탈출 루틴”, “정시파이터가 내신을 버릴 때 생기는 리스크”, “수학 실수 유형 통계” 같은 글은 본인의 약점을 자료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6.4 캐릭터성

캐릭터성은 매우 강하다. 아라양, 수능치는아라양, 타치바나 미카리♡, 경성약 27학번, 파이논이라는 계정명은 서로 달라도 수학·정시·자기비하·커뮤과몰입·애니풍 닉네임·도구 제작이라는 축으로 연결된다. 오르비에서 기억되기 쉬운 고닉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 캐릭터성은 양날의 검이다. 지금처럼 자극적 우울글과 신상 노출 불안까지 캐릭터에 포함되면, 장기적으로는 자료 제작자보다 “불안정한 고닉” 이미지가 먼저 남을 수 있다. 캐릭터성은 살리되 수위를 관리해야 한다.

VII. 비판 및 논란

7.1 공개 계정의 감정 수위

가장 큰 비판점은 공개 계정의 감정 수위가 높다는 점이다. 최근 ARKE 계정에는 우울·무기력·비교·자기비하성 제목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다. 1452066 계정에도 생명 경시처럼 읽힐 수 있는 제목, 학교·시험 포기, 자기비하가 누적되어 있다. 이 표현들이 모두 밈이라고 해도, 외부 독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의학적 진단을 하지 않는다. 공개 게시글만으로 실제 정신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없고, 오르비식 과장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계정 운영 관점에서는 이미 위험 신호다. 자료를 보러 온 사람이 이런 글을 함께 보게 되면 신뢰감이 떨어지고, 본인도 감정이 댓글 반응에 더 의존하게 된다.

7.2 신상 노출과 특정 위험

1463007 검색 표본에는 본인이 이미 학교, 이름, 인스타 등 여러 정보가 까발려졌다고 걱정하는 글이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 정보를 쓰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 조각을 계속 남기면 제3자가 쉽게 퍼즐을 맞출 수 있다. 특히 08년생, 선택과목, 학교시험, 성적, 활동 시간대, 프사, 과거 닉네임, GitHub/프로젝트 링크가 결합되면 특정 위험이 커진다.

공개 계정으로 장기 활동하려면 “신상 조각 최소화”가 필요하다. 학교, 지역, 실명, 인스타, 얼굴, 가족, 구체적 시험장, 반·담임·조원 같은 정보는 삭제하거나 아예 올리지 않는 편이 좋다.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유저일수록 본인도 분석당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7.3 내신·학교 경시 발언

정시파이터로서 내신을 경시하는 것은 이해 가능하지만, “시험 때 잔다”, “수행을 안 낸다”, “기말은 찍고 잘 것” 같은 발언은 반복되면 현실 회피 이미지가 된다. 입시 전략상 내신을 버릴 수는 있어도, 공개적으로 학교를 조롱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2028수능 내신반영 논의처럼 제도 변화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내신 경시 발언이 단순 농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전략을 고민하는 계정이라면, 내신을 버리는 이유와 리스크를 냉정하게 설명하는 편이 낫다.

7.4 커뮤니티 의존성

1319936 계정은 오르비가 공부에 좋은 콘텐츠와 질문 공간을 제공하지만 현생에 해야 할 것을 대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1463007 계정도 수학, 물2·지1, 간쓸개, 유튜브, 디시, 오르비 외에 할 게 없어 심심하다고 적었다. 이는 커뮤니티가 학습 도구와 정서적 피난처를 동시에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오르비가 공부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공부를 방해한다는 점이다. 자료 검색, 질문, 실모 후기까지는 생산적이지만, 우울글·무물보·선착순·보고서 반응 확인은 공부 블록을 잘게 끊는다. 이 유저의 성적 변동성은 공부량 부족보다 집중 환경 붕괴와 관련이 커 보인다.

7.5 자료 제작자 이미지와 빨글러 이미지의 충돌

이 유저가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지점은 브랜드 혼선이다. ARKE 모의고사, Jakal-hwpX, N제 후기, 오르비 보고서 같은 활동은 제작자 이미지다. 반면 우울글, 성적 농담, 학교 조롱, 신상 노출 불안, 과격하 자기비하는 빨글러 이미지다. 두 이미지가 한 계정에 섞이면 팔로워는 늘 수 있지만 신뢰도는 흔들린다.

해결책은 계정 분리 또는 글 유형 분리다. 자료 배포글, 실모 검토글, HWPX 홍보글은 깔끔하게 유지하고, 감정 배출은 비공개나 별도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공개 타임라인에 남을 글인가?”라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VIII. 개선 방향

8.1 자료형 글을 중심축으로 삼기

가장 좋은 방향은 자료형 글을 중심축으로 삼는 것이다. 이 유저의 강점은 수학 N제 난이도표, 드릴6 후기, Re:Re 후기, HWPX 자동화, 실모 제작 같은 생산물에서 가장 잘 보인다. 이런 글은 시간이 지나도 검색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계정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만든다.

추천 포맷은 “수학 실수 유형 리포트”, “N제 난도 재분류표”, “오답률을 높이는 선지 설계”, “Jakal-hwpX로 수학 시험지 만드는 법”, “수학 실모 검토 체크리스트” 등이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을 문서화하면 된다.

8.2 감정글 공개 범위 줄이기

감정글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다. 오르비 고닉으로서 인간적인 면은 오히려 장점이다. 다만 공개 글 제목에 강한 자기비하나 생명 경시처럼 읽힐 수 있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줄이는 편이 좋다. 특히 자료 배포 전후에는 타임라인 첫인상이 중요하므로, 최소한 자료글을 올리는 날에는 공개 감정글을 줄이는 것이 좋다.

감정 배출은 “오늘 컨디션 낮음”, “계산실수 때문에 멘탈 흔들림”, “비교 줄이고 루틴으로 복귀” 정도로 언어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만 바뀌도 글의 위험도는 크게 내려가고, 독자에게는 성장형 기록으로 읽힌다.

8.3 수능 루틴 제안

수능 준비 관점에서는 수학을 유지하면서 국어·영어를 버리지 않는 루틴이 필요하다. 수학은 이미 흥미와 자료 접근성이 충분하므로, 실수 유형을 줄이는 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어는 간쓸개나 기출을 매일 일정량 유지하고, 영어는 2등급 확보용 빈칸·순서·삽입·어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탐구는 물2·지1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전체 전략이 무너지므로, 주간 모의고사와 오답표를 고정해야 한다.

커뮤니티 사용은 공부 보상으로 제한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수학 실모 1회 + 오답 1시간 완료 후 오르비 20분” 처럼 시간 상한을 두면, 오르비가 공부 보상이 된다. 지금처럼 공부와 오르비가 동시에 켜져 있으면 공부가 산만해진다.

IX. 총평

이 유저는 오르비에서 흔히 보이는 단순 빨글러와는 다르다. 빨글도 많고 자기비하도 많지만, 그 아래에는 수학 콘텐츠를 분석하고, 실모를 만들고, HWPX 자동화를 실험하고, 보고서 포맷을 만들어 내는 생산성이 있다. 따라서 핵심 평가는 “불안정하지만 재능 있는 생산형 고닉”이다.

네 계정의 시간 흐름을 하나로 보면 성장선도 보인다. 파이는 시기에는 수학 N제 소비자·평가

자였고, 경성약 시기에는 수험 생활과 오르비 과몰입 사이에서 흔들렸고, 수능치는아라양 시기에는 페르소나와 HWPX 자동화가 결합되었고, 현재 ARKE 시기에는 실모 제작자·보고서 제작자로 이동했다. 방향은 분명히 “소비자에서 제작자”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공개 타임라인이 너무 시끄럽다. 좋은 자료를 올려도 바로 위아래에 우울글, 신상 노출 걱정, 학교 조롱, 계산실수 자학이 붙으면 제작자 이미지가 흐려진다. 계정 관리를 조금만 하면 장기 브랜드화 가능성은 꽤 높다. 반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료보다 밈과 논란이 먼저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 항목 | 평가 | 비고 |
|-----------|--------------|--|
| 활동도 | 9.5/10 | 여러 계정에서 고빈도 게시와 댓글장 형성 N제 후기·난이도 |
| 수학 콘텐츠 감각 | 8.5/10 | 표·실모 제작으로 확인 Jakal-hwpX·보고서 제작이 차별점 |
| 문서/도구 생산성 | 8.5/10 | 수학 상방은 높으나 국어/영어/탐구·내신 변동성 큼 |
| 학업 안정성 | 6.5/10 | 기억에는 남지만 수위 관리 필요 |
| 커뮤니티 캐릭터성 | 9/10 | 자기비하·신상노출·감정글 리스크 |
| 공개 계정 안정성 | 4/10 | 수학 마무리와 커뮤니티 절제가 관건 |
| 27수능 전망 | 상방 높음, 변동성 큼 | 자료형 글 중심으로 바꾸면 8.5 이상 가능 |
| 브랜드화 가능성 | 7.5/10 | |

한 줄 평: 아라양 계정군은 “오르비식 자기비하와 수학 제작자 포텐셜이 한 몸에 붙은 계정”이다. 수학·HWPX·보고서 제작을 중심에 두면 강한 브랜드가 될 수 있고, 감정글과 신상 조각을 계속 방치하면 스스로 만든 자료보다 본인의 불안정한 캐릭터가 더 유명해질 수 있다.

인 용 문 헌

- 1463007 API 타임라인: <https://orbi.kr/api/v1/user/1463007/timeline?offset=0>
- 1463007 API 타임라인 2페이지: <https://orbi.kr/api/v1/user/1463007/timeline?offset=78723692>
- 1452066 API 타임라인: <https://orbi.kr/api/v1/user/1452066/timeline?offset=0>
- 1319936 API 타임라인: <https://orbi.kr/api/v1/user/1319936/timeline?offset=0>
- 1463007 프로필: <https://orbi.kr/profile/1463007>
- 1452066 프로필: <https://orbi.kr/profile/1452066>
- 1463007 IMIN 검색: <https://orbi.kr/search?q=1463007&type=imin>

- 1452066 IMIN 검색: <https://orbi.kr/search?q=1452066&type=imin>
- 1319936 IMIN 검색: <https://orbi.kr/search?q=1319936&type=imin>
- 1411069 IMIN 검색: <https://orbi.kr/search?q=1411069&type=imin>
- GPT 5.5에게 나 분석시켜보기: <https://orbi.kr/00078230382>
- 무료) 한글 HWPX 문서 자동 수정/생성 툴 베타 배포: <https://orbi.kr/00078125427>
- [허수의 n제 후기] 드릴6 수2: <https://orbi.kr/00073020806>
- 수학 N제 난이도별 총정리(2026 ver): <https://orbi.kr/00076858084>
- 스포) Re:Re N제 후기: <https://orbi.kr/00074670172>
- 영어 커리 추천해줘요: <https://orbi.kr/00073127404>
- 3월 지1 후기: <https://orbi.kr/00072599106>
- 언매를 공부해야 되겠다: <https://orbi.kr/00073078209>
- 무물보: <https://orbi.kr/00078224620>
- 6모 적백받고 싶다: <https://orbi.kr/00078276043>

저자명: 아르케 / 주소: 미기재 / 전화: 미기재 / 이메일: arkemath06@gmail.com
 논문접수일: 2026년 6월 24일